

제목: 천국 바로 잡기

천국, 이미 시작되었어요(2)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 마19.23-2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the kingdom of heaven)'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 cf. 막10.23-25.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 눅18.24-25.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 윌리엄 맥도날드가 저술한 '신자성경주석'의 마3:2 주해(p.57-61)도 참조할 것.

- "'천국'이란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나 '하나님의 나라'란 표현은 4복음서 모두에서 발견된다.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 둘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사실들이 그 둘에 대해 동일하게 언급된다."(p.60)

- 천국(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대전제
 -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롬4.3)

(1)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이다. (마19.23-24. 막10.23-25. 눅18.24-25)

(2) 천국(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 영생을 얻는다. = 구원을 받는다. (마19.16-26/막10.17-27/눅18.18-27. 요3.3,5,15,16,17, 36)

1. 우리들이 알고 있는 천국의 모습은?

• “천국은 공짜다!”

① Go to **‘heaven’** free at no cost!

② Go to **‘the kingdom of heaven’** free at no cost!

- 롬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 엡1.5-6.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 마13.44. '천국(the kingdom of heaven)'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 눅14.33.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 눅14.26-27.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 마10.37-38.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1) 천국을 '내세의 하늘 나라'로 보는 견해

-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 = '천국(the kingdom of heaven)'
- 헬라어로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 신구약을 통틀어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

cf. 딤후4.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
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 헬. 바실
레이아. '나라'임.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아님
에 주의!)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
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
다 아멘.

① 새하늘과 새땅에 있는 새예루살렘.

- 계21장 ~ 22장 5절.

② 내 아버지 집.

- 요14.2-3.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③ 하늘에 있는 본향.

- 히11.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단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④ 낙원.

- 눅23.42-43.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 구원받은 강도는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질문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낙원'이라는 표현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해 주셨음을 알 수 있음.

⑤ 천년왕국.

- 계20.1~10. 사65.17~25.

- 마13.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 마13.31.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 마13.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 마13.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 마13.44. '천국'(= 하나님의 나라)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원. *현재/능동/직설법 시제이며, 과거 시제 아님. 참고로, NIV는 동사의 시제가 정확하지 않으나, KJV와 개역개정은 정확하게 옮겼음*).
- 마13.45-46. 또 '천국'(- *인격화된 천국, 즉, 하나님 나라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할 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원. *부정/과거/직설법 시제이며, 현재 시제 아님. 참고로, 개역개정은 동사의 시제가 정확하지 않으나, KJV와 개역개정은 정확하게 옮겼음*).

- 마18.23-24.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 마20.1-2.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 마22.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 마25.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 마25.14.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2) 천국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견해

- 계1.1-20. 서론.
- 계2.1.-3.22. 일곱 교회를 통해 예언적으로 교회 세대 묘사.
- 계4.1.-5.14. 교회 휴거(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후 하늘에서의 사건 묘사.
- 계6.1.-19.10. 7년 환난기 묘사.
- 계19.11-21.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묘사.
- 계20.1-3. 천년왕국 직전 사탄 마귀의 결박 묘사.
- **계20.4-6. 천년왕국 묘사.**
 - 계20.7-10.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 전쟁과 사탄 마귀의 영원한 멸망 묘사.
 - 계20.11-15.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묘사.
 - 계21.1.-22.5. 새 하늘과 새 땅 및 새 예루살렘 묘사.
 - 계22.6-21. 결론.

(3) 하나님의 나라(천국)를 교회로 보는 견해

- 마16.18-19.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4) 국가(민족)로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견해

- 출19.5-6.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 눅16.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구약 백성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
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
라.
- 마11.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
라.

- 욥19.25-27.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 유1.14-15.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 히 11.1-2.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미래)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는 것)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 히11.13-16.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 단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2.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용어인 '천국'.

- 눅 15.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 단수, 하나님)'과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1) '천국'의 원어적 의미.

- '천국'은 헬라 원어로
 -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 속격 복수인 '**우라논**'은 '**하늘들** ' 이라는 뜻임.
 - 그 정확한 뜻은 '하늘 나라'가 아니라, '**하늘들의 나라**'임.

① 하늘(단수).

- 헬. 우라노스(주격),
우라누(속격),
우라노(여격).

② 하늘들(복수).

- 헬. 우라노이(주격),
우라논(속격),
우라노이스(여격).

- 마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 갈3.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 (인용) 창22.18. 또 '**네 씨**'(- 히. 단수. 헬라어로는, **네 자손**)'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 마6.9. '하늘'(-원. 하늘들. 복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 마3.2. 4.17. 회개하라 '천국'(-원. 하늘들의 나라. 복수)이 가까왔느니라.
- 마5.3,10. '천국'(-원. 하늘들의 나라. 복수)이 저희 것임이요.
- 마11.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원. 하늘들의 나라. 복수)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2) 구약시대 히브리인 관념상의 '하늘들'.

- 왕상8.27. 대하2.6.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 첫째 하늘)'과 '하늘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하늘(- 셋째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 신10.14.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 시148.4. '하늘의 하늘(- 셋째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첫째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1) 첫째 하늘(- 물 가운데 궁창. 공중, 즉, 지표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인 대기권).

- 창1.6-8.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 창1.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2) 둘째 하늘(- 하늘의 궁창. 해, 달,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

- 창1.14-18.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와 낙원 등이 있는 곳)

- 고후12.2,4.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 단수, 헬. 우라노스)'에 이끌려 간 자라 ~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cf. 눅23.42-43.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 마5.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 단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 마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헬.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 신약 성경의 '하늘'.

① 하늘(단수).

- 헬. 우라노스(주격), 우라누(속격), 우라노(여격).

② **하늘들**(복수).

- 헬. 우라노이(주격), **우라논**(속격), **우라노이스**(여격).

- 고후12.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 단 수 속격. 우라누)에 이끌려 간 자라.

- 마5.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 단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 마6.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 단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마6.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 단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 마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 단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 고전15.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 단수)에서 나셨느니라.

- 히11.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 단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 계19.11 또 내가 '하늘'(- 단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 계21.1-2.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단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 빌3.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헬. 우라노 이스. **하늘들**. 복수 여격)'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들로부터) '**구원**'(- 구원의 삼중성을 상기하라)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 엡2.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헬. 에푸라니/오이스. **하늘들에**. 복수 여격)' 앉히시니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 엡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헬. 에푸라니/오이스. **하늘들에**. 복수 여격)'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hath blessed us with all spiritual blessings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 마19.23-24.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the kingdom of heaven)'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 윌리엄 맥도날드가 저술한 '신자성경주석'의 마3:2 주해(p.57-61)도 참조할 것.

- "'천국'이란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나 '하나님의 나라'란 표현은 4복음서 모두에서 발견된다.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 둘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사실들이 그 둘에 대해 동일하게 언급된다."(p.60)

- cf. 막10.23-25.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 눅18.24-25.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 마16.18-19.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하늘들의 나라**)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 복수 여격. **하늘들**)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 복수 여격. **하늘들**)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이미 시작
되었어요!”